

홍준표 “한미FTA 슬쩍 넘어 가려는 들러리엔 참석 안해”

‘청와대-5당 대표 회담’ 불참 재차 강조...전병헌 정부수석 찾아와 설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미 FTA를 슬쩍 넘어가려는 들러리(회담)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 번 청와대와 5당 대표 간 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인 당직자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가) 한 번 5당 대표 회담에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일주일 전부터 (전병헌 청와대) 정부수석이 연락이 왔는데 이것은 원내대표끼리 하는 게 맞다고 했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홍 대표는 “(한미FTA 통과당시) 최후단 터지고 이완용이라며 온갖 비난을 했는데, 그때 또 자기들이(민주당이) 집권하면 재협상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지금 와서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형국 아니냐. 미국

주장에는 300억 달러 이익을 보고 있다. 그때 그렇게 쾌락스럽게 반대 해놓고 이제 와서 두루 풍실 FTA 문제를 넘어간다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반드시 이 정부가 FTA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지켜보고 불리하게 협상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FTA를 슬쩍 넘어가려는 이런 들러리(회담)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전병헌 청와대 정부수석과 회동하느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여야 사전회담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뉴시스와 만나 “오늘 여야 사전회담에 홍 대표만 안 갔다”는 지적에 “그때 정부수석이랑 같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나란히 앉은 대표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 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靑 “홍준표 불참해도 여·야 회동은 진행”

청와대는 1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해도 오는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의 불참 관련 질문에 “다른 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내대표 회동은 법률·예산 등 원내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고, 당 대표 회동은 외교·안보 분야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이번 자리는 미국·독일 순방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 당 대표 대상이 맞다”고 홍 대표의 원내대표 회동 역할만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새로 선출됐고 당 대표가 (참석대상)이 맞다”면서 “외교안보를 강조해 온 한국당 대표이니만큼 큰 결단으로 외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박주선 “트럼프 FTA발언 금도 넘어...文정부 뒤흔었다”

“美서 눈 뜨고 코 베었으면 항변이라도 제대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하다’고 표현하며 재협상 시작을 선언한 데 대해 “이 중대한 순간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미국 정부가 아무리 협상용이라고 해도 양국간 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한 것은 금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정작 국익이 손상될 위기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침묵이 금이 아니다. 도대체 한미 정상 회담에서 재협상에 대해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른 국내 이슈로 덮는다고 덮일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에 가서 눈뜨고 코 베었으면 항변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미국에 No 하겠다던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한미FTA 재협상, 그 경

위부터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을 속이며 국민의 의지를 모을 수 없고 국회에 감추면서 국회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얻은 것이 한미FTA 재협상이라면 이는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능을 넘어 외교적 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성 발언을 내놓는 지금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민주당, ‘靑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우병우 수사해야”

추미애 “내용 보면 압수수색 왜 막았는지 이유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승계 및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 기만”으로 규정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자료를 대량 발견해 충격적”이라며 “청와대가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공소유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문서 내용 보면 왜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막았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조정·개입한 정황이 청와대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기만한 행위를 정치 논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정치권이 방조하거나 공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록물을) 허술하게 이관하고 관리한 주체가 누구냐.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라며 “(문건 공개를) 포함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갈등과 불신의 확산을 막는 것이 도리”라고 규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도 이어졌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 주범과 공범이 구속된 상황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됐다. 압수수색 방해로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적폐 연방 중 특검과 검찰이 오르지 못한 마지막 봉우리 우병우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법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별 문건의 작성주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우 전 민정수석까지 포함해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文최측근 김경수, 탁현민 거취 언급... “최종판단 국민 몫”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인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탁 행정관을) 추천했던 사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끝나고 청와대

에 들어와 도와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탁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 저도 그 중의 한 명”이라며 탁 행정관을 추천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게시 때에도 경황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고민했다면서 “그런 일을 해내는 데 탁 교수가 가장 적임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추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항간에서 탁 교수에게 쏟아지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 그 비판 속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엉켜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탁 교수 본인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다. 다만, 청와대에서 일해 달라고 강하게 부탁했던 처지라 그 사연은 꼭 밝히고 싶었다”며 글을 게재한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